

[ 사회 ]

전남 '고서~담양', 경북 '옥포~성산' 직선화 연말 개통

# 88고속도로 더 빨라진다

### 교통혼잡 해소...물류비 年 1,187억 절감

『구불거리는 도로가 반듯해져 거리는 1.2km 짧아진다. 최대 운행 가능 속도는 시속 80km에서 100km로 높아진다. 반면 운행시간은 14분에서 9분으로 5분 단축된다. 지난해 1일 평균 교통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물류비용은 1일 평균 120만원, 연간 4억4천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이상은 88올림픽고속도로(고서~옥포 183km) 일부 구간이 올해 연말 확장·개통되면서 기대되는 효과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지난 2001년 말 공사를 시작한 '고서~담양'(16.3km) 구간 고속국도가 오는 12월 말 준공·개통된다"고 29일 밝혔다.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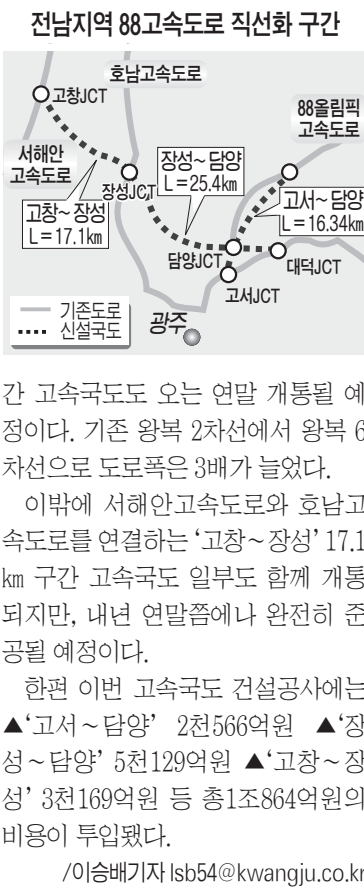
이번에 신설되는 고속국도는 왕복 4차선(편도 2차선)으로, 기존 고속도로(2차선)에 비해 넓고, 거리도 기존 구간(17.5km)에 비해 1km 짧다. '고서~담양' 고속국도는 개통 직

후 88올림픽고속도로에 편입되고, 기존 고속도로는 담양군과 협의를 거쳐 이관된다. 기존 88고속도로 노선은 고속국도 개통과 동시에 일부 변경된다.

호남고속도로와 88올림픽고속도로를 잇는 '장성~담양(25.4km) 구간 고속국도도 오는 12월 말 개통된다. 이 도로는 장성(호남고속도로)~봉산(88고속도로)~대덕(호남고속도로)까지 이어진다.

'고서~담양'과 '장성~담양' 간 고속국도가 개통되면, 호남고속도로 광주시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혼잡이 해소돼 연간 1천187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도공은 예상하고 있다. 광양항 개발을 촉진하고, 광주 첨단산단 등 광주지역 산업단지와의 다른 권역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북 '옥포~성산'(12km) 구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지난 27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에서 장학금을 전달한 뒤 박경태 광주시장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새긴 도자기를 받고 있다.

## 김재철 동원그룹회장 남도학숙에 20억 기탁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광주·전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20억 원의 기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남도학숙에서 현금 10억원·주식 10억원 등 장학금 20억원을 재단법인 '남도장학회'(공동이사장 박경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지사)에 전달했다. 김 회장이 기탁한 돈은 부인 조덕희씨가 운영하는 '섬김의 리더십 장학금'으로,

남도학숙 학생 가운데 우수한 성적과 리더십을 갖춘 10여 명에게 매년 지급될 예정이다.

강진 출신인 김 회장은 국립부 산수산대학을 나와 원양어업 등을 통해 동원그룹을 일으켰으며, 한국무역협회장(1999~2006.2)을 역임했다. 지난 2003년부터는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을 맡아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수능일 관공서·기업 10시 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수능 시행일 교통소통 원활화 대책'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수능 당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군·지·구 중 전남 담양·해남읍, 충남 진천지 포함)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부터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광주 등 지역별 지하철 운행은 자체 운행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시내 버스는 등교 시간에 집중 배치되고 개인택시 부재운행도 해제된다.

듣기·말하기 평가가 실시되는 오전 8시40분부터 15분 동안, 오후 1시 20분부터 20분 동안 버스·열차 등 모든 운송수단은 시험장 주변에서 시행해야 하며 경적사용도 금지된다.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듣기·말하기 평가 시간대를 피하도록 조정된다.

수능일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고려해 시험장 200m 이내에는 차량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주차도 금지된다.

2007학년도 수능은 11월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전국 76개 시험지구, 971개 시험장(중·고교)에서 수험생 58만8천899명이 응시할 가운데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 여수 앞바다 침몰 컨테이너 3개에 독극물

지난 7월10일 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컨테이너 전용선 2척에서 추락한 일부 컨테이너에 황산·수산화나트륨 등 독극물 상당량이 적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선적 보림사(Lloyd)를 대리해 실재 조사에 나선 영국의 '국제 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ITOPF) 엔드 터커 조사관은 지난 27일 오후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상에서 어민들이 수거한 컨테이너 적재물을 확인하고 전

문업체에 의뢰해 이른 시일 내에 수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터커 조사관은 "3박스 분량의 황산·수산화나트륨은 바다 오염은 물론 심각한 피부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조속히 수거작업을 해야 할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태풍 '에위니아'로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182개 컨테이너는 현재 25개가 인양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쌀쌀한 아침, 안개에 서리까지** 10월 30일 (음 9월 9일) ◇전국날씨

서울	맑음	7~22℃
부산	맑음	8~21℃
대구	맑음	13~21℃
대전	맑음	9~22℃
전주	맑음	6~23℃
광주	맑음	4~22℃
제주	맑음	4~22℃
울릉도	맑음	6~22℃
독도	맑음	5~23℃
경북	맑음	6~22℃
충청	맑음	7~21℃
강원	맑음	6~22℃
전라	맑음	7~21℃
제주	맑음	2~22℃
경남	맑음	6~21℃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7:13 썰물 < 00:51  
여수 밀물 < 02:27 썰물 < 08:30

▲해돋이 06:51 ▲해질 17:41 ▲달돋이 13:00 ▲달셋 ---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1(화)	11/1(수)	2(목)	3(금)	4(토)	5(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8/21	9/20	7/19	8/18	8/18	9/17

## 휴일 산 '단풍 인파' 복직 내달 초 절정...중순까지 '가을 더위'

10월 마지막 휴일인 29일 광주·전남의 주요 산과 유원지 등에는 서서히 물들어가는 단풍을 만끽하려는 행락객으로 붐볐다. 올해 단풍은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늦어, 곧게 물든 붉은 잎을 보려면 다음달 초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풍 언제 절정 이룰까= '제11회 장성 백양단풍축제'가 열린 백양사에는 1만2천여 명의 관광객이 전국 곳곳에서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이날 백양사 주변에서는 시냇물·남사당댐 공원 등이 열려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 30회 지리산 피아골단풍축제'가 열리고 있는 구례군 토지면 연곡사에는 4천여 명이 단풍객들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광주 무등산에도 평소 주말보다 10~20% 많은 2만여 명이 산행을 즐겼다. 이외 담양 추월산과 영암 월출산 등에도 5천여 명이 몰려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하지만 올해 단풍은 가뭄으로 색깔이 예년보다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무등산의 경우 지난 18일 단풍이 처음으로 관측돼 지난해보다 10일 빨랐지만, 다음달 초께나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서 단풍 시기가 늦어지고 색깔도 곱지 않다"며 "지난 22일 내린 비로 인해 단풍 물드는 속도가 약간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11월 날씨=따이난 가을 더위는 11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예보'(2006.11.1~11.30)에 따르면, 찬성질의 대륙 고기압 세력이 약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기온이 평년(2~14도)보다 1~2도 높을 전망이다. 강수량은 평년(35~87mm)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다음달 중순께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하순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박치기 왕' 김 일 선생 고희서 영면**

# '우리의 영웅' 고향에 잠들다

500여명 참석 안장식

'박치기 왕' 김 일씨 안장식이 29일 오전 10시 고희군 금산면 어전리 평지마을 김일 기념관에서 유가족과 이왕표씨 등 제자와 면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장으로 엄수됐다.

고인의 유해는 28일 서울에서 장례식을 마친 뒤 화장돼 먼저 세상을 뜬 부인 박금례씨와 합장됐다.

이날 안장식은 상주분향과 행차 소개, 추도사, 분양 및 현화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조사에서 고인의 남다른 고향사랑정신이 소개되자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오열하기도 했다. 또 금산면 곳곳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현수막들이 내걸리기도 했다.

1957년 역도산체육관에 입문하며 레슬링을 시작한 김씨는 1963년 세계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 어려웠던 시절 시름을 덜어주고 희망을 줬던 국민적 영웅으로 1970년대 중반 현역에서 물러난 뒤 지난 2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국립건설연구소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신개념 공법입니다.

**목적특·공법특·장점**

- 과다하중으로 인하여 손상된 구조물 복원
- 하중능력 회복시간(2~3시간)에서 수일
- 시공비용을 1/2로 절감할 수 있는 공법
- 복원 공법이기 때문

**목적특·장점·적용분야**

- 연약지반의 연약화 방지
- 연약지반의 연약화 방지
- 연약지반의 연약화 방지
- 연약지반의 연약화 방지

국립건설연구소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신개념 공법입니다.

## 광주 전남 이용기능장 1호

# 가발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 이수재원장 직점시술관리

**심는기발 탄생!!**

이수재원장 직점시술관리

대신남녀 프럼모가발맞춤